

유고슬라비아의혁명적운동의탄생

프레디펄먼

프레디펄먼
유고슬라비아의혁명적운동의탄생
1969

<https://theanarchistlibrary.org/library/fredy-perlman-birth-of-a-revolutionary-movement-in-yugoslavia>
SNU 의 KOC

kr.theanarchistlibrary.org

1969

” 이단은언제나적보다더위험하다.” 한유고슬라비아철학자폴란드맑스주의정권치하맑스주의지식인의탄압을분석한후남긴말이다. (S. Stojanovic, Student, Belgrade, 1968 년 4 월 9 일, 7 페이지.)

’ 노동자자주관리’ 가공식이념이된유고슬라비아에서대중통제를위한새로운시도는공식이념과그것이설명하는사회관계사이의골을보여주었다. 이를드러낸이단아들은일시적으로고립되었으며, 그들의투쟁은잠시탄압받았다. ’ 자주관리’ 라는이념은유고슬라비아노동인민이창출한부와권력을성공적으로집중시킨영리기술관료주의적관료제의가면으로작동했다. 그러나, 그가면을단한번, 부분적으로만벗겨낸것만으로도그가면은효력을잃었다. 유고슬라비아의지배엘리트들이드러났으며, 그들의맑스주의적선언은한번공개되면더이상그들의통치를정당화할수없게되는신화라는사실이드러났다.

1968 년 6 월, 이론과실천, 공식선언과사회관계사이의격차는실천과사회활동을통해드러났다. 학생들은시위와평의회를통해스스로를조직하였고, 자주관리를내걸던체제는이렇게보기도문대중의자발적조직에경찰과언론탄압으로응답했다.

유고슬라비아의이념과사회의간극의성격은 1968 년 6 월이전에이미분석되었고, 그것을분석한이들은유고슬라비아를지배하는’ 혁명적맑스주의자’ 들이말하는’ 계급의적’ 이아니었다. 그들은유고슬라비아의혁명적맑스주의자, 이단아들이었다. 공식논평에의하면, 노동계급이권력을차지한사회에서는노동자가노동자자신에게맞서파업을하는것이어처구니없는일이기에파업이있을수없다. 그러나실제로는유고슬라비아에서보도되지않았을뿐, 파업은지난 11 년동안꾸준히, 그리고대규모로일어났다.(Susret, 98 호, 1969 년 4 월 18 일) 더 나아가, ” 유고슬라비아의파업은노동운동의부활시도를나타내는현상이다.” 다시말하면, 노동자가지배하는사회에서노동운동이죽었다는뜻이다. ” 이는어떤이에게는모순처럼들릴수있다. 그러나노동자자주관리라는것이서류에만존재하는것이기때문에모순이아닌것이다.”(L. Tadic, Student, 1968 년 4 월 9 일, 7 페이지)

노동자와학생이스스로통치하는사회에서, 노동자는누구에맞서파업을하고, 학생은누구에맞서시위를하는것일까? 이질문에대한해답은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연맹의선언문에서는찾을수없고, 유고슬라비아사회관계에대한, 선언과모순된다는이유로이단으로낙인찍힌, 비판적분석을통해서만찾을수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운동은진보와국가적이해관계에의해정당화된다. 유고슬라비아사회에서계획, 정책, 개혁은진보와노동계급의이름으로정당화된다. 그러나핵심계획을입안하는자는노동자가아니며, 그계획이노동자를위한것도아니다.

” 한쪽에는노동계급을이루는최저생활수준에미치지못하는삶을살아가는임금노동자가있다. 노동계급은경제개혁의뎃가를온전히치르고있으며, 이사실을공개적으로받아들이길강요받고있다. 다른한쪽에는밤새스스로를자본화하

유고슬라비아의경험은세계혁명운동의경험에새로운점을더했다. 이들의존재는사회주의혁명은과거유고슬라비아의역사적사실이아니며, 미래의투쟁임을보여준다. 이투쟁은이제막시작하였으나, 아직어디로향할지는모른다. ” 바뵈프가적은바와같이, 관리자는관리를위해혁명을조직하지만, 진정한혁명은오직아래로부터대중운동의형태로만가능하다. 사회의모든자발적인간활동은역사적주체로서등장하여정치적정체성과인간소외의형태로서작동하는바로그정치의소멸을기초하는대중의의지를창조한다.” (M. Vojnovic, Student, 1969 년 4 월 22 일, 1 페이지) 이관점에서혁명은한대학, 공장, 민족국가에한하여생각할수없다. 더나아가, 혁명은언제어디서이미일어난사간의반복도, 과거관계의재생산도아니다. 다만새로운것의창조일뿐이다. 다른유고슬라비아작가의말을빌리면, ” 단지생산과창조의갈등이아니다. 더큰관점에서동구뿐아니라서구에서도절차와모험의갈등이다.” (M. Krleza, Politika, 1968 년 12 월 29 일, Student, 1969 년 1 월 7 일에서인용)

의미를적시해야합니다.” 라고말했다. (J. Blazevic, Vjesnik, 1969 년 5 월 9 일, 2 페이지)

유고슬라비아' 신좌파' 의탄생에대해유고슬라비아대통령에서부터크로아티아통령에이르기까지보인공식입장은 Student 지의 5 월 13 호 1 면에서풍자적이고해학적으로요약되었다. "(...) 반대파상당수가스스로민주주의를위한다고표방하지만, 그들이진짜로원하는것은일종의순수내지는온전한민주주의, 일종의자유지주의라할수있다. 실제로그들이싸워언고자하는것은감히자신들의의지와신념에따라말하고행동하겠다는기득권이다. 우리는분명히모든이가스스로에게책임을지는우리사회에대한이러한반민주분자들의모든시도를저지할것이다. (...) 이들반대파에맞선투쟁에서민주적수단이충분한성과를내지않는한비민주적수단을쓰지않을것이다. 민주적투쟁의가장훌륭한예는관료권력과대의대결이다. 최근까지관료주의가우리의가장큰사회악이었던사실은잘알것이다. 그리고관료주의는어디로갔는가? 눈녹듯사라졌다. 우리의자주관리체계와민주세력의압박으로스스로자연히녹아내려자주관리에전혀적합하지않은사람이나정부구조조차하나도바꿀필요가없었다. 반대파들은우리의지대한사회격차를공격해대며부당하다고까지말한다. (...) 그러나우리의사회적전위세력이자통치세력이며진보적경향을담지한역사적주체인노동계급은다른사회계층을희생하여특권을누려서는안된다. 우리체제의미래건설을위해희생할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 노동계급은이를염두에두고모든인민이가난한사회를만들평준화를위한요구임이명백한사회격차의급격한해소에대한요구를분명히거부해야한다. 그러나우리의목표는모두가부자가되어필요에따라분배받는사회이다. (...) 반대세력은또한계속해서실업문제를가지고공격한다. 우리체제의반대자들은일자리를만들어내는것이 (6 월에창문을여는것만큼이나) 뭘대수냐고말하며훈련된청년인민들이경제개혁을가속할것이라고말한다. (...) 현재우리의발전단계에서는더많은일자리를만들어낼수는없지만다른해결책을만들수는있다. 국경을개방하여노동자들이해외에서자유롭게고용될수있게할것이다. 우리모두가고향에서일할수있다면정말좋은것이다. 그러나개혁을위한투쟁은마지막궁극의장에마주했고상황은명백히개선되고있다. 실제로우리인민들은지금도나쁘게받아들이지않고있다. 예전에는한국가에서만일할수있지만, 이제는전세계에서일할수있다. 한국가에서전세계로향하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이는상호이해와우애를이끌어낼것이다. (...) 이들각종극단주의자, 좌경분자, 우경분자, 무정부자유주의자, 급진주의자, 선동꾼, 선교사, 교조주의자, (심지어우리의혁명이위기해쳐했다고주장하는) 사이비혁명가, 반개혁주의자, 비공식조직 (...), 일신론자, 토속주의자기타등등우리의적들을모두일일이설명할수는없을것이다. 이들모두는사태의온상이라할수있는것들을보여준다. 이들비공식조직과극단주의자들은마땅히사회로부터가열차게배제되어야하며, 그들의파괴적행동을막기위해개조되어야한다.” (V. Teofilovic, Student, 1969 년 5 월 13 일, 1 페이지)

는파렴치한집단이사적노동, 서비스, 상업, 중산층에기반하여존재한다. 그들의자본은노동이아닌투기, 중개, 개인노동의사적관계로의전환, 그리고무엇보다도탈법적부패에서나온다.”

이모순은보다일반적인표현으로정의가능한데, 맑스가밝힌사회관계가노동계급의이름을내건맑스주의정당이일으킨사회주의혁명을겪은사회에서그대로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노동자는노동과임금 (개인소득이나성과급이라는이름으로불러도상관없다) 을맞바꾸고, 임금은노동자의물질적, 사회적생존에필요한상품을구매할만큼만지급되며, 잉여노동은국가와기업관료들에의해착취되어자본으로전환, 노동자의물질적, 사회적생존조건을결정하는외부압력으로돌아온다. 공식역사에의하면, 유고슬라비아는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연맹이권력을쟁취한 1945 년에착취를폐지하였다. 그러나노동자는여전히잉여노동을바쳐국가와기업관료를배불리고, 그들의보상받지못한노동은그들의행동이아닌보다높은권력에의한힘으로돌아와그들을탄압한다. 그렇다면노동자는강제노동을하는것이며, 착취당하는것이다. 공식역사에의하면, 유고슬라비아는 1952 년노동자자주관리제도를도입하여노동계급이관료제를사회집단에서축출했다고선언한다. 그러나노동자는그들의생활수단대신생활활동으로부터소외되어그들스스로를통제하지못하며, 법전문서와선언문에서는이미사라졌다고주장하는그들을노동과생산으로부터소외시킨자들에의해통제받고있다.

미국의경우, 트러스트는역사상그들이미국노동계급의막강한생산력을중앙집중화하기시작하려할때법적으로완전히사라졌다. 유고슬라비아의경우, 1952 년노동계급을통제하던사회계층이살아졌다. 그러나실제로는 ” 통일되고중앙집중화된관료주의적독점체제의해체는모든사회활동내자주관리조직 (노동자평의회, 자주관리기관등) 의망으로변화하였다. 형식적, 법적, 명목적, 제도적관점에서는자주관리사회가맞다. 그러나이것이실제관계의상황에서도적용되는가? 자주관리의이면의자주관리기관안에서는두거대하고대립하는경향이생산관계에서등장하였다. 의사결정의중심부에는분산되고변형된관료주의가존재한다. 이는노동자와그들의이해에맞서노동관리와잉여노동분배의독점을유지하는비공식집단이존재하며, 그들은노동이아닌관료주의적위계구조상의지위에기초해이를전용하고, 조직또는지역의대표자를영원히권력을위계하여그들의직위와기존의구분, 수준이하의노동, 비합리적생산을유지하고이를노동자의집으로지우게한다. 그들사이에서그들은독점소유의대표자처럼행동한다. (...) 다른한편에는온전히사회주의적이고, 자주관리의경향을띠며이미일어서기시작한운동이있다.” (Pecujlic, 같은책)

이온전히사회주의적인경향은노동자가자신이생산한상품에의해착취당하게하는의존성과무기력에맞선, 그리고모든사회활동에대한통제권을그행위자가쟁취하기위한투쟁을상징한다. 그러나이미스스로사회/경제/법체제가자발적조직되고자주적으로통제된다고주장하는사회에서이러한투쟁이어떠한형태로받아들여질수있을까? 어떤혁명적투쟁이공산당이국가권력을취고, 이당이

스스로관료주의적통치를끝장내고자주관리를공식이념으로채택했다고하는상황에서발전할수있을까? 이투쟁에서는이미자본을몰수하여자본가계급에대한몰수도있을수없고, 공산당이지난사반세기동안국가권력을장악했기에혁명적맑스주의정당의국가권력쟁취도있을수없다. 오직다시했을때에는그전보단낫다는확신속에서해왔던일을반복하는것만이가능하다. 그러나과거의실패로전망을한정지을만큼정치적상상력이그렇게부족하지는않다. 유고슬라비아에서도다른곳과마찬가지로, 자본가계급의사유재산이몰수와'노동계급의조직'(즉공산당)으로의대체, '노동계급의조직'의국가권력쟁취, 그리고권력을전공산당의다양한형태의'사회주의'에대한선언은이미역사적사실이며, 이는상품생산, 노동소외, 강제노동의종말뿐아니라대중의자발적조직과자주적통제의시작조차도의미하지않는다는사실을이제깨달았다.

결과적으로, 이미'멋진신세계'과같은시각에서산업화의가속과사회관계의합리화를위한효율적도구임이검증된투쟁의조직방식은노동대중전체의일부에대한독립적이고비판적인기획과통제를위한투쟁의조직방식이될수없다. 정당관료에의한국가권력쟁취는그정당이스스로'노동계급의조직'이라고칭하고그들의통치를'프롤레타리아트독재'나'노동자자주관리'라고칭한다고해도그이상으로나아갈수없다. 또한, 유고슬라비아의경험은'노동계급의조직'이국가권력을쟁취하는것이노동자의사회적생산통제로나아가는길의단계도, '노동자자주관리'라는공식선언도이를실현하기위한단계도될수없음을보여주었다. 유고슬라비아의경험은최소한역사적으로유고슬라비아노동자들이세계최초로모든단계의사회적삶에있어권력의탈소외를위한투쟁에나섰음을보여줄뿐이다. 그러나유고슬라비아노동자들은그러한투쟁에앞장서지못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학생들이이러한투쟁에앞장섰고, 유고슬라비아학생들은세계최초도아니었다.

노동계급을조종하기위해맑스주의적단어를쓰면서벌어지는정당의국가권력장악은그와완전히다른역사적사명인상품관계의폐지와사회주의적관계의건설과구분되어야한다. 반세기동안전자는후자를가장하여등장하였다. '신좌파'의등장은이혼동을끝장내었다. 전세계적인부흥을경험하고있는이혁명적운동은정당관료를국가권력에밀어넣는짓거리를멈추고, 이미권력을전관료체제에맞선다는특징을갖고있다.

당이론가들은자본주의사회의'신좌파'는'사회주의국가'의학생운동과전혀관련이없다고주장한다. 이러한관점은유고슬라비아의학생운동이자본주의국가와같이잘발달하지않았다는점, 1968년 6월이전까지유고슬라비아학생들이수동적이고, 친미적감정을가지고, 소부르주아적인생목표를가졌다는점에서아주잘쳐줘야과장된주장이다. 그러나이들이론가들의바람에도불구하고유고슬라비아학생들은그렇게뒤쳐지지않았으며, 사회주의혁명이라는과제에적합한새로운조직양식을향한탐구는유고슬라비아학생에게도빠지지않았다. 1968년 5월, 프랑스에서모든형태의분리된사회권력을탈소외시키기위한거

대한합리적해법을제공할계획에대한저항은우리사회의현실적인가능성너머에있는듯하다. (...) 이것이현실이다. 각기업, 지부, 지역등의각기다른노동조건을배제할수없다. (...)”(V. Rakic, Student, 1969년 3월 11일, 12페이지)

Student 지의다른호에서는이러한태도가아래와같이규정한다. "모든것을일관적으로급진적이라고과장하여판단하는당사자는스스로를객관적으로존재하는무언가로규정한다. 따라서그에게는모든것이지나치게이상주의적이고, 추상적이고, 공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현실과너무동떨어져있지만, 자신은결코그렇지않다. 사회의전환을위해기여하는수많은이들이계속해서현실에기대어존재하는벽에의존하며현실에대한그들의미신적감각과소위현실정치라고불리는것에의존해그것이그들이피해를봤다는장애물인자기자신이라는사실조차깨닫지못하고있다." (D. Grlic, Student, 1969년 4월 28일, 3페이지)

"우리는 (사회주의는말할것도없으려니와) 자주관리그리고민주주의가이념적형식으로소외되어있을때자주관리에대한선언과포고를내리는식으로그것을도입했다는사실만으로써어떠한투쟁의필요성도부정한채자주적통제권을선택할수있다는환상을퍼뜨리는위험한수단이될수있음을잊어서는안된다. 우리가이미우리스스로를다스리고있을한왜, 누구와싸워야하며, 우리의잘못에대해서는다른누구도아닌우리가책임져야합니다." (같은글)

유고슬라비아의사회주의이념은공허하다는사실이밝혀졌다. 지배엘리트는스스로의정당성을깨버렸다. 그러나비판적분석, 혁명이론의형태로폭로는여전히이루어지고있다. 자발적조직에바탕한혁명적행동은아직은경험이매우부족하다. 한편, 과거사회주의를위해투쟁했던이들은권력을유지하기위해투쟁하며자신들의정권을노동계급의자주관리로규정하려들고, 상품경제를이론가가된자기자신의입으로세계에서가장민주적인사회라고정의하고있다. 1969년 5월, 유고슬라비아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오랜기간활약한크로아티아에서선출된새통령은"우리의발전에대한가장기초적인지표들은크로아티아, 그리고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공화국의경제적발달이온전히소화로우며진보적임을보여줍니다"라고무심하게말했다. 그는유고슬라비아노동자의실업과강제망명문제에대해우려를표하면서"그문제에대해서는"임시적으로해외에고용된우리인민에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들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조치들은체계화되고, 발전되고, 우리체제, 경제및도덕내의통합된일부로포함될것입니다."라며곧해결될문제라고평했다. 그는또한현재체제와그에대해정곡을찌르는비판에대해서도우려를표하면서"좌파적이고혁명적인글귀부터국수주의적분위기와함께철학, 문헌학, 노동력의움직임, 민족과공화국의경제상황이라는형식으로모순적으로보이는것은신경쓰지않고내놓은망상, 혼돈, 절망, 안달, 공상적인허상"이며, "이러한사실들을우리의총체적발전과현실의맥락과떼어놓고패배주의, 의기소침, 때로는국수주의적행동에이용하기위해과장하고일반화하려는시도들을가열차게저지해야합니다. 우리노동인민에게이러한시도를체계적이고사실대로알려야하며, 그들의특성과방법, 실제의도, 그리고그러한행동의

면전사회의수준을발달시키고, 서로다른기업, 부서, 공화국사이의어떠한분리도허용하지않는과정인가?” (Susret, 1969 년, 4 월 18 일)

노동계급을착취해왔던전문가에대해, Student 지는기업의다양한유형에대한자세한설명을실었다. ”1) 기업사무원 (관리자, 경영자, 영업사원등) 은경영이사회, 노동자평의회, 또는기타자주관리조직으로부터임금을받고기업에게경제적으로이득이되도록법조항이나도덕을어긴다. (...) 2) (...) 3) 유령일자리는탈세를위해존재한다. (...) 4) (...) 5) 사회적소비를위한기금은사유아파트나별장의건설또는자동차구매를위해쓰인다. (...)” (Student, 1969 년 2 월 18 일, 1 페이지)

사회주의유고슬라비아의공식이념은상업주의-기술관료주의적엘리트의이해관계와결코충돌하지않는다. 사실은오히려그들의이해관계를정당화한다. 1969 년 3 월,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9 차당대회폐회식에서는 6 월의혁명가들의비판을인용하면서이를기각해버리고공식이념을재확인했다. 상품생산이사회관계의중심에놓여있는것을’ 사회주의’ 라고부르는어처구니없는주장은여기서도다시나온다. ” 사회주의하상품생산의경제법칙은현대생산력과합리적경영발전의강력한지지대로작용한다.” 이문구는’ 사회주의’ 하상품생산의대안이스탈린주의뿐이라는이제는식상하기까지한악마의논리에기대고있다. ” 정부의행정관료주의적관리와사회적재생산은현실관계를무너뜨리고독점과경영환경의소위관료주의적주관을형성하여사회생산물의분배의기생충과비합리성을필연적으로양산하게된다. (...)” 따라서선택은하나다. 현상태를유지하는가, 아니면 1948 년이전까지공산주의자동맹이유고슬라비아사회에강제해왔던바로그시스템으로돌아가는가. 이러한논리는유고슬라비아의공식적인구호인” 노동에따른분배” 라는이념이말하는바를무너뜨리는데에도쓰인다. 이들의해석은” 능력과기여의차이를무시한다. 이러한요구는강력한생산과사회위에서인공적이고미신적인균등화를만들어내고빈곤과불평등과특권을만들어내는행정관료권력의형성을초래한다.” (Student, 1969 년 3 월 18 일) ” 노동에따른분배” 라는원칙은역사적으로자본가계급이지주들의귀족정에맞선투쟁과정에서등장한것으로, 현재유고슬라비아에서도이원칙은부르주아들이말한것과같은원리로작동하고있다. 때문에유고슬라비아무역업체의성공한상업주의적기업가들의막대한개인소득 (과성과급) 역시그의물질적성공이그의훌륭한능력과사회에대한기여를입증한다는이유로이구호에따라정당화된다. 다시말하면, 분배는노동에대해상품경제에서시장이내리는사회적평가에의해 이루어지는것이다. 이러한분배체계는 (맑스가자본주의상품생산의반대라고정의한) 사회주의가아닌자본주의상품생산이라고불리는사회관계체제를설명하는” 능력에따른노동, 시장성과에따른분배” 라는구호로요약할수있다.

이문건에대한변호는정교한논쟁방식이아닌지금이가능한최선의세계라는보수적자기만족으로점철되어있다. ” 이자료가담고있는정신과기본사상과일치하지않는비판을받아들이기어렵다. (...) 우리가마주한모든관계와문제들에

대한투쟁이역사적경험을쌓고있을때베오그라드법학교수들사이에서’ 학생과정치’ 라는주제가논의되고있었다. ’ 논의의성격을결정한주제’ 는” 스토자노비치박사의효현에의하면’ 복지국가’ 의신화와전통적부르주아민주주의는물론선진서구사회에서혁명적목표를모든수단을동원하여무디게만드는데성공한사민주의정당들, 즉전통적파정당들에맞선’ 신좌파’ 운동에서의인간참여가능성이었다.” (”The Topic is Action”, Student, 1968 년 5 월 14 일, 4 페이지)

1968 년 5 월, 유고슬라비아학생들은자본주의사회의동지들과많은공통점을갖게된다. 베오그라드학생신문의 1 면사설에서는” 현재사회정치형국의같은수많은문제에대해쉽고빠른해결책이없다는사실에의해더욱침해졌다. 다양한형태의갈등이대학에서수면위로떠올랐고, 전망의부족, 다양한문제들에대한해결책의부족이다양한행동양태의뿌리에있다. 이를느낀수많은이들이이갈등이충돌로, 중대한정치적사태로번질지, 또이사태가어떤형태로일어날지를묻는다. 누군가는총체적사회구조를특정짓고이상황의직접원인이되는조건에영향을미칠빠르고효과적인방법이없기에이사태가무더질뿐피할수없다고말한다.” (”Signs of Political Crisis”, Student, 1968 년 5 월 21 일, 1 페이지) 같은신문의 1 면에서는’ 노동의핵심에가려진소외’ 에관한맑스의아래인용문을게재하였다. ” 노동은부자들에게는경이를, 노동자에게는고통을생산한다. 궁전을짓고노동자에게는옴막만을준다. 아름다움을생산하지만노동자에게는끔찍함뿐이다. 기계가노동을대신하지만, 노동자의일부를야만적일자리에내팽개치고, 나머지를기계로만든다. 정신을창조하지만, 노동자에게는무지와크레틴증만을안겨준다.”

같은달, 베오그라드청년연맹기관지사설에서는” 우리가보건대유고슬라비아학생의혁명적역할을 (학생들의물질적, 사회적상황의문제와모순을포함한) 일반적인사회문제와모순을해결하기위한참여에있다. 특정학생문제는그것이아무리심각할지라도고립되고일반적사회문제와떨어져해결될수없다. 학생의물질적상황은사회의경제적상황과분리될수없고, 학생자주관리는자주관리의사회적문제와분리될수없다.” (Susret, 1968 년 5 월 15 일) 이기관지의다음호에서는’ 현재청년정치참여의조건과취지’ 에관한논의를담으며아래와같은관측을내놓았다. ” 따라서대학은보다넓은범위의사회제도와분리될수없기에대학개혁은사회전체의개혁, 또는어쩌면혁명없이불가능하다. 그렇기에사상과행동의자유, 그리고소위대학의자율성은사회전체가변화할때, 그리고이변화가총체적자유와자주관리의수위를바꾸는것이가능할때에만가능하다는사실역시따라온다.” (Susret, 1968 년 6 월 1 일)

1968 년 4 월, 자본주의국가들의동지들처럼유고슬라비아의학생들도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의연대와미국의군국주의에반대하는시위를열었다. 루디두치케 (독일신좌파학생운동가 - 역자주) 가슈프링거 (독일의보수언론, 디벨트, 빌트등신문사소유 - 역자주) 가급진적서독학생들에맞서벌인기획의결과로피

격당했을때, 유고슬라비아학생들은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과의연대를위한시위를열었다. 베오그라드의학생신문은루디두치케와독일맑스주의철학자에른스트블로흐에대한기사를실었다. 유고슬라비아학생들은세계학생운동의경험을알수있었다. ”올해여러나라에서벌어지고있는학생봉기는청년은사회를바꾸는과정에서중요한사업을말을수있음을보여준다. 용기와투쟁에대한의지가상승했고, (혁명이지적대담의주제로자주올라와) 수많은학생들의비판적의식이투철해졌다는점에서이러한봉기는우리대학의동아리들에게도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 (Student, 1968 년 4 월 23 일, 1 페이지) 파리는이투쟁에대한의지를나타낼수있는조직형태의예시를보여주었다. ”파리뿐아니라독일, 이탈리아, 미국학생들의새로운혁명적운동에서완전히새롭고무엇보다중요한점은이운동은현존하는모든정치조직으로부터독립되었기에가능했다는것이다. 공산당을포함한모든조직들은체제의일부가되어일상적인의회주의놀음의규칙에영여붙어그들이차지한지위를내려놓을각오를하고이미친듯이용감하고언뜻보기에가망없어보이기까지한이러한행동에참여할의지가없었다.” (M. Markovic, Student, 1968 년 5 월 21 일)

유고슬라비아학생운동의발전에기여한또다른요소는베오그라드학생들의학생회내관료제에대한경험이었다. 같은해 4 월, 철학부학생들은폴란드의맑스주의지식인탄압에항의하는서한을모았다. ”오늘날전세계에서학생들은인류사회를창조하기위한투쟁의최전선에있기에우리는폴란드사회주의체제의반응에매우경악했다. 자유로운비판적사고는어떠한권력으로도탄압받을수없으며설령그것이표면적으로사회주의이상에기대고있을지라도그러하다. 우리청년맑스주의자들은오늘날사회주의국가에서반유대주의적공격과타협하고이를내부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이용하는것을이해할수없다. 우리는폴란드사회주의가과거수많은아픈경험을겪은이후에내부문제를비민주적인방식으로해결하려는것이나그해결책으로맑스주의사상을탄압하는것을이해할수없다. 또한노동계급그들의완전한해방을목표로하는진보적학생운동사이에갈등과분열을조장하는것에대해파렴치하다고여긴다.” (Student, 1968 년 4 월 23 일, 4 페이지) 철학부학생들의모임은이편지를폴란드로보냈지만유고슬라비아학생연맹대학위원회는이를반대했다. 왜냐? 철학부학생들은자신들의관료들이가진기능과이해관계를아래와같이분석했다. ”유고슬라비아학생연맹대학위원회는정치적활력을잃고행동하지못하며무력하게무언가를할책임감을전혀느끼지못하는상황에이르렀다. 아무도조직에따지지않고조언이들어오지않는한행동을’취해야할필요가없는’ 것이다. 이는학생청년들의표현에대해나쁜전술이며민주주의에대한더나쁜태도이다. 대학위원회가행동의핵심에대해이해하길그만둔때논의는형식의영역으로이어진다. ’어떤의견을내야하나?’ ’누구의허가를받아야하나?’ 이러한수동적인분위기에서누가행동을시작할것인지는물어볼필요도없다. 대학위원회가다른어떤모임도아닌바로그구성원자신들이제기한행동에대해반대하는것은우리사회주의의핵심원리가구성원수준에서의사결정

대학개혁으로가는길에서, 유고슬라비아의대표적인 (관변) 경제학자중한명은마술적요소와함께관료주의지상낙원을옹호하였다. 그는몇년전소련의’사회공학자’ 국가관료제에의한인간활용을위해개발한산술적’ 국가생산수지’를역설하였고, 이제는’ 실제사회체계분석을위한일반체제이론의도입’ 을옹호하고있다. 이일반체제이론이라는것은미국과같은’ 선진적이고진보적인사회체제’ 에대한초신과학적발견이다. 이에의하면’ 일반체제이론은미래사회과학계의모든전문가들뿐아니라영역에관계없이사회발전에참여하는모든전문가들에게필수불가결한것이될것” 이라고한다. (R. Stojanovic, "On the Need to Study General Systems Theory at Social Science Faculties", Student, 1969 년 2 월 25 일) 만약대학개혁을통해이일반체제이론이라는것이모든미래유고슬라비아기술관료들의머리에주입된다면아마도유고슬라비아는마법과같이’ 선진적이고진보적인사회체제’, 그러니까상업주의적이고기술관료주의적이며군사관료주의적인인간공학의신천지로도약할것이다.

학생들은노동자들로부터분열되었다. 그들은투쟁을재기했다. 이는학내관료들이상업주의-기술관료주의적엘리트들보다더효과적으로충성한결과였다. 관료들은학생들로하여금이’ 대학개혁’ 을’ 자주관리’ 하고그들을경영자, 기술자, 관리자로만드는과정에참여하라고다독였다. 한편, 유고슬라비아노동자들은이전보다훨씬더많은것을생산하고, 그들의노동이만들어낸산물이노동자에맞서권력을휘두르는다른사회집단의권력과부를증대하는것을목도하였다. 헌법에따르면, 노동자는스스로를다스린다. 그러나 Student 지의노동자와의인터뷰에의하면’ 문서에서만그럴뿐이요. 경영자가사람들을고르면, 노동자는따라야합니다. 그게이곳이돌아가는방식이죠.” (Student, 1969 년 3 월 4 일, 4 페이지) 노동자가이계속해서증가하는부와권력의사회적불평등에맞선투쟁을만들어내려한다면, 유고슬라비아의끔찍한실업을마주하게될것이다. 유고슬라비아를떠나는것외에는답이없는수많은실업예비군이그를대체하고자기다리고있다. 노동자는여전히’ 스스로를다스릴’ 강력한수단을가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노동자들도가지고있는파업말이다. 그러나한분석가에따르면, 사회의혁명적조류와나머지노동계급으로부터분리된노동자들의파업은’ 경제주의적’ 파업이며, 유고슬라비아사회에서노동자의힘을증대하지못한다고한다. 오히려반대의효과를일으키는데, ”11 년간의파업경험이무엇을바꾸었는가? 파업이터지는모든곳에서파업을일으킨바로그사회관계가재생산된다. 예를들어, 노동자들은분배에서부당한대우를받았다는이유로봉기하면, 이전에부당한대우를자행했던이들이받았던것을토해내고, 파업이멈추고노동자는다시피고용인으로돌아간다. 그리고이전에자신의자리를유지하기위해서노동자들을지켰던이들이다시그렇게된다. 다시말하면, 임금노동관계는이를해결하기위한파업의핵심원인으로, 지속해서재생산된다. 따라서이런질문이따라올수밖에없다. 노동계급이현재기업상황에서온전한의미로스스로를해방시키는것이가능한가? 아니

이우리가하는일을따르게하십시오, 그것은그들의권리입니다. 그들이우리일상에서자기역할을하게하고, 모든것이불분명하거나분명해야할때나를찾을수있게하십시오. 그들의대표가찾아오게하십시오.” 투쟁의취지와목표에대해티토는유치원생들앞에서그들의항의를하나하나들어주겠다고약속하며이렇게말했다. ” 이항쟁은어느정도는학생들이내가내 스스로 물어보았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결과입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학생들 역시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내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로서의 자각이 있는 오 랜 공산주의자라면 자신이 있는 자리를 고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 민에게 그 자리를 기꺼이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학업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았습니 다. 여러분의 성공을 빕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시간을 낭비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Tito, Student, 1968 년 6 월 11 일, 1-2 페이지)

‘학생조직’ 이 대학 개혁을 위한 ‘투쟁’ 을 선도하는 동안, 학생들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투쟁을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한 학생들은 다시 수동적이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졌다. ” 6 월은 학생들의 의식이 폭발한 시기였다. 6 월 이후에는 여러 의미로 그 이전과 비슷해졌는데, 이는 사회의 6 월의 사건과 그것이 나타낸 목적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설명 가능하다. ” (Student, 1969 년 5 월 13 일, 4 페이지)

‘대학개혁’ 의 취지는 베오그라드 대학 총장에 의해 정의되었다. 6 월 사건 반 년 후 Student 지에 실린 그의 방침에 의하면, 총장은 학생의 노동 계급으로부터의 분리나, 학생의 기술 관료나 군과의 체계적 통합 등 학생들이 꼭 집어 맞서 싸운 것들을 ‘목표’ 라고 집어넣었다. ” 대학과 학생의 물질적 입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은 우리의 지속적인 임무입니다. (...) 현재 대학 업무에 관한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모 든 패배주의와 선동에 맞서 싸울 책무입니다. 우리 대학 그리고 학생 청년은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에 기꺼이 그리고 열렬하게 참여했고,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사방의 모든 침략자들에 맞서 우리의 방어력을 건설하기 위한 체계적 조직은 우리 모두의 빠르고 지속적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 (D. Ivanovic, Student, 1968 년 10 월 15 일, 4 페이지) 이러한 발언들은 ‘대학 개혁의 취지는 자주관리’ 라는 내용을 담은 길고 모호한 문장들에 뒤이어 나왔다. 총장이 ‘자주관리’ 의 ‘취지’ 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는 위에 인용한 바로 저 발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학 개혁을 위한 ‘투쟁’ 에 참여하지 않아, 그 책무는 그 문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인 학부와 교직원들에게 넘겨졌다. ” 교사 다수와 그 동료들의 주요 대화 주제는 자동차, 별장, 그리고 편한 삶이다. 학계의 저술에서 냉철하게 비판받은 사회 엘리트들의 주요 대화 주제도 그와 같은데, 정작 그들은 그들 자신이야말로 그 엘리트 집단의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B. Jaksic, Susret, 1969 년 2 월 19 일)

을 내리는 자주관리라는 점을 생각할 때 모순이 아닌 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는 오직 우리가 자주관리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조직은 스스로 해산할 수 없 으며, 해산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우리 행동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바로 위로부터의 어떠한 지시나 명령도 제도화된 형식도 없이 평범한 군중의 의 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 (같은 문서)

노동소외에 기초한 사회 관계와 대학 문제의 불가분성, 세계 ‘신좌파’ 의 경험, 대중에 의한 자발적 조직과 관료주의적 조직 사이의 차이에 대한 자각 등의 요소와 함께 베오그라드 학생들은 행동에 나섰다. 행동을 촉발시킨 사건은 사소했다. 1968 년 6 월 2 일 밤, 뉴 베오그라드의 학생 기숙사 근처 야외에서 열리기 위한 공연이 실내의 작은 공간으로 장소가 변경되었다. 공연을 보고자 했던 학생들은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져 이윽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가담했다. 시위대는 정부 청사를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경찰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적 언어에 의하면 공식적으로는 ‘민병대’ 라 불린다) 에 의해 저지 당 하여 학생들은 민병대의 지팡이로 두들겨 맞고 상당수가 체포되었다.

다음 날인 6 월 3 일, (칼 마스 부른 대학으로 개명된) 베오그라드 대학을 구성하는 학부 다수와 뉴 베오그라드 거리 곳곳에서 총회 가 지속적으로 열렸다. ” 학생들은 토론에서 유고슬라비아 사회의 총체적인 사회 격차, 실업 문제, 사유 재산 증가, 특정 사회 계층의 불로소득, 노동 계급 다수의 견딜 수 없는 조건, 그리고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토론은 ‘노학연대’, ‘우리는 노동 인민의 아들이다’, ‘사회주의 부르주아 물러가라’, ‘언론 자유 집회 자유’ 등과 같은 구호와 박수로 인해 중단되었다. ” (Student, 특별호, 1968 년 6 월 4 일, 1 페이지)

언론 탄압에 이어 경찰의 탄압이 들어왔다.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언론은 학생들의 투쟁을 다른 인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저 학생들의 투쟁을 학생 문제에 의한, 특권을 가진 동떨어진 집단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투쟁으로 보도했다. 베오그라드 당국이 검열한 Student 지의 6 월 4 일자 1 면에는 초기의 혁명적 투쟁을 특권층 학생들의 반항으로 규정하는 언론의 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 언론은 다시 한번 대학의 사건을 왜곡하는데 성공했다. 언론에 의하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투쟁한다.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 전체의 이해를 망라한 투쟁, 무엇보다도 노동 계급의 이해 관계를 위한 투쟁이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시위대의 발표가 다른 무엇보다도 부당한 사회 격차를 언급한 이유이다. 학생들에 의하면 (사회 불평등에 맞선) 자주관리와 개혁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도 한 이 투쟁은 노동 계급과 지금의 유고슬라비아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신문은 부당한 사회 격차에 대해 언급한 발언은 한마디도 인용하지 않았다. (...) 또한 집회와 시위에서 외쳤던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를 위하여, 노학연대 등 노동자와 학생의 길과 이해 관계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하나 된 감정과 생각을 담은 주요 구호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 ” (Student, 1968 년 6 월 4 일, 1 페이지)

6월 5일, 유고슬라비아학생연맹은성장하는운동의지배력을확보하고, 대변인을맡는데성공했다. 이들은평의회, 집회, 데모의학생들이요구한혁명적목표를포함한'정치행동강령'을제시하였지만, 동시에'2부''대학개혁'이라는조항을부록처럼끼워넣었다. 이조항은나중에새로이깨어난유고슬라비아학생운동을다시잡재우는데핵심역할을맡는다. 정치행동강령의 1부는사회불평등을시작으로고용, '공산주의자동맹을포함한모든사회정치단체의민주화', 사회재산의사유재산으로의왜곡, 부동산투기, 문화의상업화등을짚었다. 그러나급진적학생들이 1부에서상대적으로명확히명시한그들의목표에만족하여읽어보지도않은 2부는완전히다른, 사실상정반대의내용을담고있다. 2부의첫번째요구는 1부에서밝힌목표가전혀이루어지지않을것이라고전제한다. 이는유고슬라비아사회체제의현재요구조건을대학에도적용하는것으로, 유고슬라비아의상업주의적이고기술관료주의적인체제가요구하는바를만족시키는기술관료주의적개혁을요구한다. "우리경제와자주관리적관계의사회문화적발전을위한요건에맞춘학교체제의즉각적인개혁(...)" (Student, 특별호, 1968년 6월 8일, 1-2 페이지)

이학생봉기를그들이맞았던지배적사회관계의요건에종속되게하기위한조작이자조잡한뒤집기는다음해까지명백하게드러나지않았다. 체제의즉각적반응은훨씬분명하여, 억압, 고립, 갈라치기를이어나갔다. 경찰의탄압은폭력, 연행, 사건이나집회및시위에대한온전한내용을담은학생신문검열등의형태를띠었다. 그리고 6월 6일밤, "비밀경찰요원두명과경찰관한명이학생신문을나뉘주던학생들을야만적으로공격, 신문 600 부를압수하여찢고불태웠다. 모두신문을받고자모인수많은시민들앞에서벌어진일이다." (Student, 1968년 6월 8일, 3 페이지)

경찰의탄압외에도지배적해관계자들은학생들을노동자들로부터고립시키고갈라놓는데성공하였다. 그들은일시적으로그들의'진보적학생운동과그학생들이온전히해방시키고자목표하는노동계급사이의갈등을조장하고갈라놓으려는파렴치한시도'를달성했다. 이는다양한방식으로이루어졌다. 학생언론검열과공식언론의호도는노동자들이학생들의요구에관심을갖지못하게했다. 기업관리자와전문가집단은학생들의투쟁을'그들의'노동자들에게'설명'해주면서노동자들에게'그들의'공장을'폭력적인'학생들의공격으로지켜야한다고가르치고언론에'노동자공동체'의이름으로경찰에게유고슬라비아의자주관리를폭력적인학생들로부터감사하다는편지를보냈다. "전해지는글과말에의하면, 학생들은국가민병대에게무력을사용하고, 경찰서를포위하여막았다. 처음부터학생운동이도시와대학시설에서보여준질서와자기통제는폭력이라는낯은단어로묘사됐다. (...) 노동자와학생의갈등을만들고자하는이관료제는공산주의자동맹, 기업과국가기관에또아리를틀고특히언론에영향력을드려내고있다. (언론은매우권위적인구조를가지면서조직책임과비판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자주관리에기대고있다.) 노동자-학생운동에직면한관료제는발밑의땅이무너지고

들이향하고자하는음침한곳이사라지는것을느끼며공포에질려무의미한주장을질러대고있다. (...) 우리운동은시급히노동계급과이어져야한다. 우리의기본원칙을설명하고, 이를실현시켜야하며, 보다풍부하고정교해져야하고, 구호에그쳐서는안된다. 그러나이것이야말로관료제가두려워하는것이고그렇기에그들은노동자들에게학생들로부터공장을지키라하고학생들이공장을파괴할것이라고한다. 이얼마나길이남을멍청한짓인가!" (D. Vukovic, Student, 1968년 6월 8일, 1 페이지) 이리하여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의자주관리자들께서는마치프랑스의 (CGT, 프랑스공산당등) '노동자조직' 이그로부터몇주전프랑스노동자들을사회주의혁명으로부터지켜냈듯이유고슬라비아노동자들을유고슬라비아학생들로부터지켜내는데성공한것이였다.

탄압과분열은유고슬라비아혁명운동을끝장내지못하였다. 평의회는계속열렸고, 학생들은계속해서노동자와연대하고사회전환이라는책무를실현할수있는조직방식을찾고있었다. 마지막단계는운동을진정시키고가능하다면재기시켜맞서싸워야할체제의요구에복무하게만드는것이였다. 이단계는 Student 지의 6월 11일자신문에게재된티토의중대연설의형태로나타났다. 절대다수의인민이중국의'개인숭배'를지상최악의죄로여기는사회에서절대다수의학생은모든유고슬라비아의공공기관, 가정, 신문 1면에지난사반세기동안사진이걸려온인간 (티토 - 역자주) 의아래와같은말에박수를보냈다. "...이시위들과그전의일을생각해보건대, 청년및학생들의봉기는자발적인행동이라는결론에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시위가전개되고이후거리에서대학강당으로이어짐에따라, 이사태를자신들의뜻대로이용하고자하는외세의요소들이점차침투하고있습니다. 가장반동적인것에서부터마오쩌둥의이론에기댄급진적요소와같은가장극단적인것에이르기까지다양한경향과요소들이있습니다." 문제를사상의취지에서사상의근원 (외세사상의외세적요소) 로뒤집어혁명적학생들을고립시키고분리시키려는이러한시도이후공화국대통령 (티토 - 역자주) 각하께서는토착적사상만을가진바른토종학생들을회복시키려노력하시었다. "그러나절대다수, 그러니까 90% 정도의학생들은정직한청년들이라고생각합니다. (...) 대학내최신정세를보면 90% 의학생은악에찌들지도않고, 저많은질라스 (티토의정적으로당원의계급화를비판함 - 역자주), 란코비치 (티토의정적으로스탈린주의적중앙집권통제경제와세르비아중심주의를지지함 - 역자주), 마오주의자들이학생들에게관심있다는명목하에그들이원하는바를이루려는것을허락하지않는우리의사회주의자청년들입니다. (...) 우리청년들은올바릅니다. 그러나우리는그들에게더많은관심을가져야합니다." 학생들에게그들이지금까지해왔던것을하지말것을말함으로써, 자주관리유고슬라비아의대통령각하께서는그들이어떻게해야할지를말한것이다. "동지들그리고노동자여러분, 나는우리학생들이이들문제에대해건설적인시각과해법을통해도울것이라고호소합니다. 그들